

대학 무용학과의 존립을 위한 선발-교육-진로 방향성 모색

신민혜*

- | | |
|---------------------------|---------------------|
| I. 서론 | V. 무용학과 진로교육을 위한 논의 |
| II. 대학교육에서의 진로교육 | VI. 결론 |
| III. 대학 무용학과 입시전형 현황 및 대안 | 참고문헌 |
| IV. 역량기반교육에서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 Abstract |

I. 서론

신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무용은 인류의 문화 태동기에서부터 함께 해온 문화 활동으로서 현 인류의 인성을 규정하는 인간 본원적 의미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무용은 인류에게 있어 그 예술적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여, 그리고 교육적 기여가 지대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인류문명의 태동기에 잉여자원과 잉여시간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유희하는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함께 해온 무용은 인류의 문화 창달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의 등장으로 인한 단순노동직의 획기적인 감소와 창의적 융복합 직종의 확대가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파고를 맞이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의 무용은 인류의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창의성 기반의 노동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대역할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무용을 포함한신체활동의 ‘창의적 인류’에 대한 기여는 최근 발달한 신경과학에도 잘 나타나 있다. Cotman & Berchtold(2002), Cotman & Engesser-Cesar(2002), Cotman, Ratey & Hagerman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활동 자체가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에 분포한 뇌세포(Neuron)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신경과학적 결과와 앞으로 도래할 창의적 인재에 대한 수요 폭발의 AI 시대를 감안한다면 무용을 포함하는 신체활동이 인간의 창의성 함양에 더해 인류의 존재적 존엄성 향상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언뜻 체감되지 않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창의교육에 대한 수요 급증, 여가시간 증대와 기대수명의 증가, 그리고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성인병 인구 감소를 통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체 활동과 음악이 함께 하는 즐거운 무용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은 절실히 보인다.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minhei@sookmyung.ac.kr

하지만 문제는 이렇듯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무용전공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무용학과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다른 학과와 통합 혹은 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 알리미의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제시된 2016년도 전국 대학의 무용학과는 35개로서 2012년도 대비 6개가 폐과된 상태이고 ‘무용학과’에서 다른 명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용학과의 존립이 위태한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무용에 대한 대중적 몰입’과 같은 무용계 외적인 혹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치부하기에는 무용계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 다름 아닐 것이다. 무용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 또는 필요에 따라 무용의 내용과 형식을 변형하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 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속에서 무용학과 지원자의 감소와 그에 따른 무용학과 폐과의 확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의 실질적인 배경과 함께 대학 무용학과에 진학하는 신입생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무용의 특성상 오랜 시간 전공실기를 연마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르지만, 타 전공과는 달리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폭이 넓지 않다.¹⁾ 또한 무용학과를 졸업하고도 관련 직종으로 진출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²⁾ 이에 더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대학구조조정은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무용학과도 대학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³⁾

이러한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오레지나(2013)의 연구는 대학 무용학과에서 필요한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최윤선(2012)은 사회적 수요에 따른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을 개발 및 제안하였다. 그리고 박선희, 조남용(2009)의 연구는 진로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무용학과 교육과정 에 대한 대안적 방향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졌다. 최근 대학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배수을(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수요에 맞는 무용전문인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무용학과 발전적 방향 탐색에 관한 나경아, 한석진(2010), 박순자(2013), 오현주, 노현식(2012), 황인주(2006)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으며 문영, 양정현(2015)은 융합예술교육을 무용교육에 적용하여 무용융합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무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진행되었으나 대학 무용학과의 존립을 위한 ‘선발-교육-진로’에서의 일관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학과의 존립을 넘어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괄적인 변화, 즉 ‘신입생의 선발’, ‘교과과정의 변화’, 그리고 ‘진로지도’에 이르는 전방위적 변화의 모색과 방안의 제시 없이는 무용학과의 존립과 발전은 요원해 보인다. 신입생 선발 방식과 내용의 변화만으로 혹은 교과과정의 변화만으로 또는 진로지도만으로 무용학과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본 연구는 ‘선발-교육-진로’에 이르는 일관된 무용학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해준, 이윤경(2014), 무용전공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의식 조사, 『한국무용과학회지』 31(2), p.18.

2) 신민혜(2016), 진로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한 무용학과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운영방안, 『무용예술학연구』 61, p.2.

3) 신민혜(2015), 진로확대를 위한 역량중심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

II. 대학교육에서의 진로교육

최근의 경기침체는 대학교육으로 하여금 취업과 진로로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이 54.8%라는 한국교육개발원(4) 자료는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 비율이 32.6%라는 통계청의(5) 자료는 취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 또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이 외면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적극 반영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진로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던 무용학과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무용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29.7%로서 전체 평균 54.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학원교습이나 개인교습과 같은 무용진로의 특성 상 조사의 시점, 범위, 대상의 차이에 따른 통계 DB의 부정확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평균 취업률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학문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의 세 가지 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사회의 요구에 따라 그 무게중심은 변화한다. 그리고 현재는 ‘교육’에 그 방점이 있으며 그 내용이 진로와 연관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대학생의 수요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그 문제가 단지 학생의 경제적 곤란으로 그치지 않고 우울이나 스트레스로 연계되며 결국에는 사회문제화 된다는 이유로 인해 취업난은 가법계 다루어질 수 없다.(6) 그리고 진로에서의 어려움은 개인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무용학과의 예에서와 같이 폐과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공적인 부문에서의 진로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시행되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7)

대학도 진로교육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적 부문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취업과 진로를 위해 대체로 상담, 특강, 강좌개설이라는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담은 주로 진로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8)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하는 효과(9) 있으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차원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반면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특강의 경우 이력서와 같은 실제적인 문서작성이나 실제 면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10)으로써 실질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기성으로 인한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정규강좌로서 개설되는 교과로서의 진로교육은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실질적인 정보에 더해 진로에서의 자기주도성과 같은 역량함양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11) 하지만 대학기관 및 개인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진로교육은 효과적이며 모든 영역에서 시행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선행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이동혁(2010)과 황매향, 손막인, 강혜영(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의 확대가 고

-
- 4)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 연보』(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20.
 - 5) 통계청(2013), 비정규직 고용 동향, <http://www.index.go.kr/por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2016. 10. 16.>.
 - 6)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 연구』 10(1), pp.417-435.
 - 7)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9(1), pp.63-92.
 - 8) 김경미, 백사인(2011),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Holland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 『취업진로연구』 1(2), p.36.
 - 9) 김은희, 김봉환(2009),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p.2236.
 - 10)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1), pp.17-36.
 - 11) 황매향, 손막인, 강혜영(2007),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8(1), pp.71-91.

용확대로 연계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미진함을 나타내었고, 정미경, 김수란(2013)의 연구는 진로교육에서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진로결정수준을 향상하거나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진로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무용학과와 진로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갖추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전미진로정보조정위원회(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 : 이하 NOICC)(1992)의 자료는 진로교육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 자료에서는 구직에 나서려는 개인은 첫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지적한다. 즉 자신의 흥미, 성향, 능력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시장탐색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수준 조정과 같은 진로설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선행 자료 김희수(2007, 2012), 노경란, 현영섭, 박소연, 이효남, 변정현, 박봉수(2007), 허은영(2009)의 연구에서도 NOICC(1992)에서 제시한 절차 및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기술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자료에 나타난 ‘자신에 대한 이해’, ‘필요교육과 기술’, ‘직업탐색’, ‘구직기술’ 등과 같은 절차 및 개념에서 그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진로교육과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최근의 변화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Gardner(1993)의 다중지능이론을 접목한 김주현과 문용린(2005), Shearer & Luzzo(2009)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구직자 자신의 인지적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구직의 효과성을 향상한다는 인식 아래 구직자 자신에 대한 이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김혜영, 이수정(2013), 이지연(2002), 이종승, 지은림, 도승이(2012)의 연구에서 기술되어 있듯이 구직자의 역량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역량향상을 통한 진로교육 및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선행 자료들은 진로교육 및 개발에 있어 역량의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역량의 기반 위에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하고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접목되어야 성공적인 진로진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로의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교육의 체계성의 부재가 결국 진로교육과 고용확대 간의 낮은 상관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교육부¹²⁾는 미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및 기초소양 교육의 강화 그리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그리고 교육과정 내 자유학기제 도입 등을 제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중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고교 졸업 후의 또는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을 함으로써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상당수의 진학자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진학자 자신의 흥미나 관심, 적성을 근거로 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진로신념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입수능)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진학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¹³⁾ 하지만 무용학과 진학자의 경우, 대학입시에서의 실기평가 비중이 대입수능시험 성적보다 월등히 높고 실기평가를 대비한 실기기능 습득을 위해 오랜 기간의 실기학습을 요구하는 특성 상, 진학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근거한 진학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교사를 희망하는 사범계 진학자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수준을 보인다는 고향자(1992)의 연구에도 잘 드러나 있다.

12)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제2015-80호)』(세종: 교육부), pp.1-48.

13) 최문경, 이기엽(2008),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1(3), pp.23-48.

진로교육에서 제시하는 흥미와 적성의 발견이나 개발과 같은 자아탐색, 진로탐색, 진로계획, 진로결정과 같은 단계를 생각할 때, 진로교육의 범위는 중등학교나 대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노인인구의 급증이라는 당면과제를 포함할 때, 진로교육은 은퇴 후의 생활을 포함하여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¹⁴⁾ 진로교육의 과정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 및 개발하는 단계, 진로에 대한 탐색, 진로결정에서의 자기효능감 향상, 진로계획의 수립, 진로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핵심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 및 개발하여 탐색된 진로와의 매칭을 통해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기술된 대학의 진로교육은 이러한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상담, 특강, 강좌개설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은 소위 말하는 ‘잘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의 향상에 있다.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성공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신념의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직업목표와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해결해 가는 전 단계를 포함한다.¹⁵⁾ 따라서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역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 진로결정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진로교육의 핵심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실무적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진로결정효능감의 정도도 중요한 진로교육의 한 영역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¹⁶⁾ 무용학과의 학문적 특성을 배제한 실무교육이나 전문지식의 제공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용학과 학생 스스로가 무용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타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한 후 진로를 확대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은 무용학과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진로결정효능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상담과 멘토링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상담과 멘토링의 주체가 다양하지 않고 그 역할이 제한적일 경우 그 효과성이 매우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에서의 특히 무용학과에서의 상담과 멘토링의 주체 및 내용이 다양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무용학과 진학자의 진학신념에 비해 무용학과를 졸업한 후의 진로결정은 ‘불확실한 취업전망’¹⁷⁾과 진로신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역기능적 진로사고’¹⁸⁾라는 문구로 대변된다.¹⁹⁾ 진로문제에서의 역기능적 생각이나 신념은 진로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중 합리적인 사고를 저해하는 편견과 같은 내적 사고²⁰⁾이며 다양한 직업세계에서의 스스로에 대한 자기효능감 저하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²¹⁾ 그리고 무용학과 학생들의 진학이유 중 ‘직업’과 관련한 목적이 제일 우선

14) 김봉환(1998), 21세기 진로상담의 방향,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 pp.1-23.

15) N. E. Betz, K. L. Klein & K. M. Taylor(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pp.47-57.

16) 이종찬(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연구성과의 비교분석, 『취업진로연구』 3(1), pp.49-56.

17)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4.

18) 박민선(2010),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7-18.

19) 한선숙(2009),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문제와 진로성숙의 관계, 『예술교육연구』 7(2), pp.25-36.

20) G. W. Peterson, J. P. Sampson, Jr and R. C. Reardon(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s: A Cognitive Approach*(Pacific Grove, CA: Brooks/Cole).

21) D. E. Saunders, G. W. Peterson, J. P. Sampson, Jr. and R. C. Reardon(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된다는 박기선(2003)의 연구는 무용학과 진로교육의 절실함을 더해 준다.

물론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장 자체의 협소함과 무용학과 및 학생들의 시장 수요에 대한 대응, 즉 무용학과 학생들의 진로확대 노력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적극성 정도에 그 내외적 원인이 있으나, 취업시장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무용학과 교육과정의 수립과 실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취업역량에 대한 탐색 과정이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 비논리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고가 개입되어 자존감이나 진로결정효능감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인은 바람직한 진로결정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²²⁾ 또한 박민선(2010)의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결정효능감 뿐만 아니라 우울과도 같은 기타의 부정적인 감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따라서 개인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감소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에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포함될 때, 진로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감소만이 진로를 확대하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지만,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역기능적 진로사고로 인한 진로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과 그간의 무용학과 학생들의 진로가 제한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III. 대학 무용학과 입시전형 현황 및 대안

대학 무용학과는 무용예술인, 무용지도자 등 무용전문인력 양성에 학과의 교육적 지향점을 두고 운영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목표가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의 교육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고등교육법 제28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다.²³⁾ 대학은 이와 같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각 학과의 실정에 부합되는 교육목표 및 이념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살펴보면 ‘이론과 실기를 균형 있게 겸비한 창조적인 전문 무용인’, ‘공연예술계의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타 장르와의 접목을 통해 무대 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탁월한 무용예술인’에 지향점을 두고 ‘창의성’, ‘도전정신’ 역량을 함양할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세종대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이론과 예술적 지도능력 함양’, ‘품격 높은 전문 무용예술인의 육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지도’ 및 ‘전공’역량을 함양할 것을 제시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실기 및 이론을 토대로 창의적인 전문 예술가와 무용학자로서 무용계를 주도해 나갈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실기 및 이론의 유기적 수업 방식을 통해 개인의 소양에 맞는 지도법’을 실시함으로써 이론/실기가 포함된 ‘전공역량’의 함양과 ‘창의성’, ‘도전정신’ 등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pp.288-298.

22)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pp.853-872.

23) 교육부(2016), 『고등교육법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28조(목적)』(세종: 교육부).

〈표 1〉 2017학년도 무용학과 수시/정시모집 요강

| | 성균관대학교 | 세종대학교 | 숙명여대 | 이화여대 | 한양대학교 |
|-------|----------------------------------|--|------------------------|--|--|
| 수시인원 | 37 | 36 | 18 | 38 | 32 |
| 수시성격 | 예체능특기자 | -예체능특기자:15 -실기우수자:21 | 실기위주 | 예체능실기전형 | 무용특기자 |
| 수능최저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수시단계 | 1, 2단계 | | | 1, 2단계 | 1, 2단계 |
| 학생부 | 교과, 비교과 | 교과:국어, 영어 | | 교과:국, 수, 영, 사/과, 체 | 교과:국, 영, 사 |
| 수시반영 |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40+ 실기60 | -실기우수자: 실기90+학생부 교과10 -예체능특기자: 입상실적80+면접 10+학생부교과10 | -실기 100 | -1단계: 학생부교과100(국, 수, 영, 사(2)/과(2), 체) -2단계: 1단계20+ 실기80 | -1단계: 실기70+학생부 교과30 -2단계: 1단계 실기100 |
| 서류 | 학생부, 자기소개서, 활동증빙자료, 선택-수상실적 | -실기우수자: 학생부(교과) -예체능특기자: 학생부(교과) | | 학생부 | |
| 실기시험 | -전공기초실기 :공통실기 (따라하기) -전공작품실기 | -실기우수자: 기본 실기, 응용실기 -예체능특기자: 각 종대회 3위 이내 | -공통실기:40 -전공실기:60 | -공동실기 -종목별실기 | -기본기 (공통):40 -개인기 (전공):60 |
| 정시성격 | | | 실기위주 | | |
| 모집인원 | | | 18 | | |
| 수능/실기 | | | 40/60 | | |
| 수능 | | | 국어(40), 영어(40), 사탐(20) | | |

이어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지적 능력’, ‘창조적 역량’, ‘전인적 소양’을 겸비한 차별화된 무용예술 전문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둬으로써 ‘무용실기 및 지도역량’에 대한 함양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끝으로 한양대학교에서는 ‘창의력 개발로 특성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예술가로서 예술적 지도능력 향상함’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창의성’, ‘자기이해/개발’, ‘지도역량’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5개 대학 무용학과의 교육적 지향점을 나타내는 표현에서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무용인 육성’ 또는 ‘전문 예술가 양성’에 치중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무용학과 입시 선발제도를 살펴보면 ‘예체능 특기자’, ‘실기 우수자’, ‘무용특기자’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무용 실기 중점의 선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표 1〉은 서울시 소재의 5개 대학 무용학과의 2017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요강에 대한 세부내용을 나타낸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발 내용을 보면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정시선발은 없으며 수시 1, 2단계를 통해 37명의 학생이 선발되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서류 100%가 반영되는데 학생부, 자기소개서, 활동증빙자료가 포함된다. 2단계는 1단계 점수의 40%와 실기 60%가 합산되며 실기시험은 전공기초실기(따라하기)와 전공작품실기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2단계에서 실기 능력의 평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지원자의 작품과 따라하기를 통한 실기 능력만이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세종대학교 역시 정시선발은 없으며 수시 절차를 통해 36명의 학생이 선발되는데 크게 ‘예

체능 특기자'와 '실기우수자' 전형으로 나누어진다. 예체능특기자의 경우 입상실적이 80%, 면접 10%, 학생부교과 10%가 합산되어 총 15명을 선발하며, 실기우수자 전형은 실기 90%와 학생부교과 10%를 반영하여 21명을 선발한다. 예체능특기자의 경우 무용대회 입상 실적(각종대회 3위이내)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무용 기능에 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실기우수자 전형 역시 실기평가 90%에서 기본 실기(따라하기)와 응용실기(작품)를 반영함으로써 지원자의 실기 역량이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수시/정시선발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먼저 수시의 경우 실기 100%로 18명이 선발되며 정시에서는 수능 40%, 실기 60%가 합산되며 실기평가는 공통실기 40%, 전공실기 60%로 따라하기 과제와 지원자의 무용작품이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여자대학교는 정시모집은 없으며 수시모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1,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교과 100%, 2단계는 1단계 20%와 2단계 실기 80%로 이루어져 실기시험은 공통실기와 종목별실기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도 수시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30%와 실기 70%, 2단계는 1단계에서의 실기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100%를 차지함으로써 실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전체 평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5개 대학의 이러한 실기비중에 대한 치중이 보여 주는 것은 결국 각 대학 무용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과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에 상응하지 않는 신입생 선발방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시대적 요구인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상이 교육이념과 목적에 기술되어 있지만, 정작 선발에서는 지원자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기존의 무용기술위주로 습득된 지원자의 '작품'과 공통실기인 '따라하기'에 대한 평가는 지원자가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역량의 함양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 무용학과 선발 형식과 내용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가 요구하고 무용학과의 교육목표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선발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 단지 기술이나 기술의 함양만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부딪히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 직관, 통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고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물론 무용실기평가의 반영은 무용학과의 매우 전통적인 역량으로써 선발기준과 방식에서 당연히 중시되어야 한다. 실기평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지원자의 창의역량 함양 정도나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즉흥', '창작'과 같이 새로운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평가에서 발현될 수 있는 무용동작의 창작, 그리고 창작에서의 문제해결방식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는 과정에 대한 평가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창의력, 문제해결력, 비판적사고력 등의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의 측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시한 선발제도의 변화는 교과과정, 진로교육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대학의 무용학과의 상기한 교육적 목표에 따라 무용전문인 육성에 무게중심을 둔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발방식과 교육과정의 연계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무용학과 학생들의 선발-교육-진로의 연계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무용학과를 대표하는 목표가 '무용인'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주요 진로로 혹은 최선의 진로로 제시되기 보다는 진로 중의 하나로서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무용수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임을 이미 다수의 연구와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민혜(2015)와 태혜신(2012)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용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진로로의 확대가 어렵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선 발과 교과과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진로 및 취업의 위기에 더해 대학정원 수급의 불균형,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무용학과의 통폐 합 등 무용학과의 존립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에도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학 무용학과 의 교육적 목표는 가장 전통적인 ‘전문무용인 양성’에도 무게를 두고 무용수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이 포 함되어져야 하지만 무용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무용관련 분야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다 양한 진로로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무용학과 교과과정의 내용 및 형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IV. 역량기반교육에서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무용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신체를 통한 동작, 무용수, 소품, 물리적인 공간 및 개념적 도식 등의 무용매개체(dance medium)를 통하여 개념 및 사고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적 능력을 개발 하는 데 있다.²⁴⁾ 즉 무용교육은 무용이라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무용교육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대학 무용학과는 실기 중심의 교과과정 으로 단지 기술 습득에만 치중되어져²⁵⁾ 학습자들의 다양한 사고의 폭을 좁히고 창의성 함양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무용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지향적 무용 작품의 완성은 결과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무용 창작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 문제해결력, 의사결정 능력, 자기 주도성, 비판 적 사고력 등의 역량을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교육은 역량중심 교육(Competency-based)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의 원활한 진출이 가능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을 공급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⁶⁾²⁷⁾ 이 러한 측면에서도 무용학과 교과과정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학과의 교육적 지향점과 취지 에 부합하는 특성화 운영은 결국 급변하는 현 시대에 선도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즉 무용전공에 대 한 가장 전통적인 실기교육의 심화 과정뿐만 아니라 타 전공과의 융복합교육, 그리고 학습자들이 다양 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로 확대 및 직업 창출로의²⁸⁾ 연계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량교육의 배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 이하 OECD)의 ‘주요 역량 선정 및 정의(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이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인력자원 개발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역량을 규 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상의 개발, 운영, 평가의 주요 개념을 발표하였다. 역량 교육의 지 향은 OECD(2003)를 비롯하여 유럽연합(2000)과 미국대학협회(2006),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제시한 역량의 개념 및 하위요소는 비슷한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4) 황인주(2009), 안무역량 개발을 위한 안무기능과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7, p.199.

25) 최재희(2015), 창의·인성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무용교육의 방향, 『한국체육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p.48.

26) 박정준, 홍애령(2016),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 인식을 통한 대학 진로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3), pp.65-88.

27) 신은경(2013), 고등무용교육 재구조화를 위한 반성적 과제와 전략,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1), pp.1-18.

28) 오레지나(2013), 대학무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방향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pp.1-12.

교육부는 2016년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기초 소양 함양 및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역량은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등으로 선행 자료에서 제시한 역량의 요소와 개념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확대를 위한 역량중심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연구(2015)에서 제시된 무용학과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은 총 10개의 핵심역량과 각 역량별 하위요소 43개로 선행연구에서 기술된 절차와 내용은 유사한 맥락에서 기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역량에는 ‘교양및전문학습’, ‘다문화’, ‘대인관계’, ‘도전정신’, ‘문화감수성’, ‘자기관리’, ‘자율/주체’, ‘전공실기’, ‘정보처리’, ‘창의’ 역량 등으로 선행 자료에 기술된 역량의 개념 및 하위요소에서도 그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현행 <무용학과 교과과정-역량>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교과목에서 담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문가 협의를 실시한 결과, 무용학과 교과과정은 대체로 ‘교양 및 전문학습역량’(61회)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공실기’(50회), ‘창의’(49회), ‘자기관리’(46회), ‘자율/주체’(43회), ‘도전정신’(42회), ‘정보처리’(41회), ‘대인관계’(38회), ‘다문화’(37회) ‘문화감수성’(37회)의 역량별 표기 합계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개별 교과목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은 최소 4개에서 최대 10개로 판단하였는데 그 중 ‘무용구성법’, ‘무용인류학’, ‘예술경영’, ‘무용지도법’, ‘무용창작’, ‘아동무용연구’, ‘예술교육상담’, ‘무용진로특강’의 교과목은 핵심역량 10개를 모두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무용학과 교과과정은 교양 및 전문학습 역량에 대한 반영과 무용학과의 전통적인 특성인 실기역량 및 창의역량 함양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용학과 교과목에서 담고 있는 역량은 최소 4개에서 최대 10개의 다양한 역량이 교과과정상에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학과 교과과정을 통한 다양한 역량의 함양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용학과의 교육적 지향점과 취지를 살려 교과과정의 실질적인 시행의 변화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교육에 대한 무용교수자의 이해와 의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학습자들의 역량-진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역량의 함양이 가능하며 또한 교수자에 대한 역량-진로교육이 함께 병행되었을 때 역량중심의 무용학과 교과과정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무용학과 진로교육을 위한 논의

대학의 목적이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라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진로와 취업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선발-교육’의 프레임은 이미 ‘선발-교육-진로’로 변경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학과와 전공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학과의 존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무용학과의 진로교육은 무용학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과, 즉 진로결정과 취업이 이루어질 때만이 그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진로와 취업이 화두가 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 각 대학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내용을 정식 교과나 비교과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왔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탐색-설계-역량함양-구직’의 형태와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²⁹⁾³⁰⁾³¹⁾³²⁾. 다음의 <표 2>은 이들 연구를 통해 분석된 진로교육교과과정

을 분류한 것이다. 진로관련 교과목은 대체로 학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학년의 경우는 ‘자기 및 진로탐색’의 단계를 위한 진로 교과과정, 2학년의 경우는 ‘진로설계’, 3학년은 설계된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한 ‘역량구축’ 교과과정, 끝으로 4학년의 경우는 ‘구직/창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이며 현장 친화형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로교육이 무용 전공 학생 자신의 진로결정효능감 향상과 역기능적 사고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계성이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당국의 체계적 형식과 내용은 학과와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나, 교양필수로서 채택되기 보다는 일반교양선택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진로 교과목에 대한 수혜는 대체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무용학과 학생들도 이러한 진로관련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표 2>에 따른 무용학과 진로교육 교과과정도 학년별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개설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대학에서 발전시켜온 진로교육과정의 체계성에도 불구하고 무용 전공 교수자 및 학습자의 적극적 수용이 부재한다면 이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따라서 앞서 기술하였듯이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도입될 진로교육의 체계성에 대한 시급함에 더해 무용전공 교수자 및 학습자의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수용의지가 뒤따를 때 진로교육의 성공이 기대될 수 있게 된다.

이수단계별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1학년 ‘진로탐색’의 과정에서는 무용수를 비롯하여 안무가, 무대설치 등의 다양한 직업군과 진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에 더해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교수-학습의 내용이 된다. 이를 위한 무용학과 내에서의 첫 걸음은 졸업이수학점의 하향조정이나 전공필수 학점의 하향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졸업이수학점의 과도한 책정은 무용 전공 학생들로 하여금 타 영역에 대한 탐색이나 타 영역과의 융합에 대한 사고를 제한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방안은 필수 전제 조건이 된다. 물론 이러한 전제는 무용수와 같은 실기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 선택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기에 무용 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2> 진로교육 교과과정 분류

| 이수단계 | 진로지도 단계 | 교과내용(예시) | 핵심활동 |
|------|-----------|----------------------|---------------|
| 1학년 | 자기 및 진로탐색 | 직업과 진로탐색 | 전공 관련 진로 탐색 |
| 2학년 | 진로설계 | 진로설계실습(상담, 멘토프로그램) | 진로 상담 및 진로 설계 |
| 3학년 | 역량구축 | 취업설계, 기업실무 인턴십 | 진로 관련 역량구축 |
| 4학년 | 구직/창업활동 | 성공취업실전(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 구직관련 실무 |

다음으로 2학년 ‘자기설계’단계에서는 진로 및 자기탐색의 과정을 거쳐 선택한 자신의 해당 진로에

- 29) 김희수(2007),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pp.35-46.
- 30) 김희수(2012), 대학의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5(1), pp.3-89.
- 31) 노경란, 현영섭, 박소연, 이효남, 변정현, 박봉수(2007),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의 개정 연구』(서울: 한국고용정보원), p.23.
- 32) 허은영(2009), 대학생 대상 진로지도 교과목 운영의 효과, 『한국직업교육학회』 28(4), pp.77-94.

대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상담'이다. 그리고 상담을 정식 교과과정이나 비교과과정으로 전환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멘토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한 멘토나 교수자와 같은 멘토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진로에의 진출을 위한 실제적인 정보를 획득하거나 해당 진로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진로설계를 구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물론 진로 진출을 위한 설계는 구체적인 실습의 과정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성공적인 진로 진출의 구체적인 첫 단추가 끼워지는 단계이다. 무용학과 학생들을 위한 상담의 대부분이 첫째, 무용학과 교수자와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 교수자 외의 멘토가 있다 해도 공연 또는 교육사업(무용교육)에 종사하는 멘토가 다수임을 감안한다면, 무용학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멘토와 다양한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진로와 멘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 된다. 이에 더해 트랙제도의 도입은 상담과 멘토 후의 자기설계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대셋팅트랙(음악, 배경화면, 소품, 의상, 메이크업 등으로 세분도 가능), 무용공연트랙(무용수), 안무트랙(안무가), 공연평론·비평트랙(평론가, 비평가), 무용치료트랙(무용동작치료사), 무용교육트랙(유아, 초등, 중등, 성인 등), 생활무용트랙, 무용피트니스트랙(섭식, 피트니스, 운동처방) 등과 같이 진로설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정보제공 및 선택(다중선택도 가능하도록)에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량 구축의 단계나 구직 및 창업활동의 단계에서의 효과성 또한 매우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학년 '역량구축' 진로지도의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산학 인턴십과 같은 현장 활동을 경험해봄으로써 취업시장에 들어서기 전 직업에 필요한 역량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과과정에 취업설계 및 특강을 통해 전문가들의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달되는 노하우 또는 핵심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 된다. 무용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체험에 대한 기회제공은 2학년의 '진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멘토와의 네트워킹이 전제된다. 무용 전공의 특성 상 기존의 네트워킹은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학년을 위한 진로설계 단계에서 구축된 다양한 멘토와의 네트워킹은 무용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인턴십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4학년 '구직/창업활동'의 과정은 졸업 후 진로 진출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이력서, 면접, 발표 등 성공적인 취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하고도 실제적인 방안을 각 대학의 진로교육과정은 제시한다. 즉 구직 및 취업이라는 실전에서 필요한 매우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제시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기소개서의 작성이라든지 면접에서의 발표방식 및 태도에 대한 실제적 정보 전달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진출 및 취업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단계인 것이다. 이는 무용학과 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취업 관련 학교 기구에서 전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용학과 학생들 또한 이의 수혜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무용전공 관련 진로에 특화된 정보의 전달은 교수자나 혹은 멘토를 통한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무용전공 학생들을 위한 비교과과정, 즉 '구직특강'이나 '창업특강'과 같은 단회성의 프로그램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용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체계적 진로교육의 핵심은 첫째, 다양한 진로와 융합을 위한 무용전공 교육체제의 완화, 둘째, 다양하고도 열린 네트워킹, 셋째, 학생들의 실제경험을 통한 진로결정효능감의 향상, 넷째, 실제적 구직 프로그램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의 도입은 무용학과 구

성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안의 도입이 대학 행정부의 행정적 도움없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무용실기의 특성 상 양질의 실기수업을 위해 그리고 무용학과 학생들의 창의적, 융합적 사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타 영역 강좌에 대한 수강 장려를 위해서는 무용학과에서 제공하는 강좌에 대한 최소수강인원의 완화나 교수자의 교육시수 완화 없이는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무용학과 교수자-학생 상담의 실제화, 다양한 멘토의 확보 등을 시행하는 초기에는 이를 위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대학당국과의 공조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무용학과 존립을 위한 선발-교육-진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문명사적 혁신은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의 형식과 내용에서의 혁신,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의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아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다.³³⁾ 이는 학계의 많은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각계의 다양한 조사와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이다.

하지만 문화가 인류의 본성에 근거하고 그 본성 중 하나인 “유희하는 인간”의 모태가 되었던, 리듬과 함께 한 신체의 움직임, 즉 무용의 생명은 인류의 생존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속에서 자본의 논리가 대학의 헤게모니를 상당부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고, 무용 전공 또한 이러한 측면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록 본 연구의 목적이 무용 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기획되었으나, 무용계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인류의 생존과 함께 해야 할 순수예술로서의 무용의 가치와 존재가 부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가치와 존재가 부정된다는 것은 인류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인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결국 본 연구는 순수예술로서의 무용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조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무용수, 안무가와 같은 순수예술의 진로와 공연기획, 무대기획, 의상, 메이크업, 무용피트니스, 무용 웰니스 매니저 등과 같은 새롭고도 다양한 무용전공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대학의 선발제도와 교과과정 그리고 진로교육은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을 밑바탕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무용에서 요구하고 무용을 통해 계발될 것으로 사료되는 창의 혹은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교육적 자산의 확충이다. 그간의 무용은 예술적 감수성과 그의 발현이라는 측면이 주로 강조되어 왔다. 물론 대학에서의 선발과 교육에서도 이러한 가치와 역량이 강조되어 왔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대부분의 무용전공 선발제도가 ‘따라하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작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시범도 타인에 의해 창작되고 안무된 작품을 반복된 훈련을 통해 표현하는 것임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물론 반복을 통한 미적 움직임의 표현이 무용전공의 핵심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33) 현남숙(2016), 인공지능 이후의 삶: 노동하지 않아도 행복한가?, 『철학과 현상학 연구』 70, p.126.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교과과정과 학제에서의 다양성은 필연적이다. 실기와 공연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교과과정 속에서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에 대한 표현은 매우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 하지만 무용전공 학생들의 희망 진로가 순수예술을 위한 무용수와 안무가에 그치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교과과정 혹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트랙제의 운영과 같이 교과과정과 학제에서의 다양성이 포용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부모의 혹은 사회의 외면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포용과 열림의 원칙이 무용전공의 환경에 포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수자나 학생들이 타 전공과의 융합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될 때, 다양한 네트워킹과 진로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간의 무용은 순수예술을 주된 지향으로 바라보고 걸어 왔다. 이는 결국 과거 무용전공자의 사회진출이 순수예술이나 순수예술 경계선 근처라는 제한적 진출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용전공자의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교육이 학생이 스스로 주도하는 다양한 탐색이 기반이 되고, 해당 분야에 이미 진출한 멘토와의 소통과 네트워킹 그리고 인턴십과 같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이미 기술한 바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다양한 진출을 위한 열린 마음, 열린 탐색, 열린 교과과정 그리고 열린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면, 무용전공자의 성공적인 교육과 사회진출이 담보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의 원칙 속에서 무용 구성원 전체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 줄 때 무용의 존립기반에 대한 근심은 기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6). 『고등교육법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28조(목적)』.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제2015-80호)』. 세종: 교육부.
- 노경란, 현영섭, 박소연, 이효남, 변정현, 박봉수(2007).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의 개정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이광우, 전제철, 허경철, 홍원표, 김문숙(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C 2009-10-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 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European Commission(2000). *A Memorandum on Lifelong Learning*. Brussels: EAEA. 11.
-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1992). *The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Projec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 OECD(2003). *Schooling for Tomorrow: Think Scenarios, Rethink Education*. Paris: OECD.
- Peterson, G. W., J. P. Sampson. Jr and R. C. Reardon(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s: A cognitive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Ratey, John J. & E. Hagerman(2008). *Spark : The Revolutionary New Science of Exercise and the Brain*. Boston, MA: Little, Brown.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기선(2003). 무용전공 대학생의 취업인식도 및 교과과정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민선(2010).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민혜(2015). 진로확대를 위한 역량중심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1): 17-36.
- 김경미, 백사인(2011).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Holland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 『취업진로연구』, 1(2): 19-39.
- 김봉환(1998). 21세기 진로상담의 방향.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 1-23.

- 김은희, 김봉환(2009).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225-2239.
- 김주현, 문용린(2005).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청소년기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9(2): 393-412.
- 김혜영, 이수정(2013). 역량진단검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7(4): 139-172.
- 김희수(2007).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35-46.
- _____ (2012). 대학의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5(1): 73-89.
- 나경아, 한석진(2010). 대학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과정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56(5): 39-56.
-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9(1): 63-92.
- 문영, 양정현(2015). 대학예술융합교육의 현황 연구. 『대한무용학회』, 73(6):54-69.
-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 연구』, 10(1): 417-435.
- 박선희, 조남용(2009). 진로 교육 측면에 살펴본 무용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현황과 대안적 방향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19: 1-12.
- 박순자(2013).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한 대학무용교육의 방향 제시. 『대한무용학회지』, 71(6): 84-110.
- 박정준, 홍애령(2016).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 인식을 통한 대학 진로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스포츠포츠교육학회지』, 23(3): 65-88.
- 배수을(2016). 사회수요 맞춤형 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근거하여. 『무용예술학연구』, 59: 1-19.
- 신은경(2013). 고등무용교육 재구조화를 위한 반성적 과제와 전략.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1):1-18.
- 신민혜(2016). 진로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한 무용학과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운영방안. 『무용예술학연구』, 61: 13-27.
- 오레지나(2013). 대학무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방향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1-12.
- 오현주, 노현식(2012). 대학에서의 무용교육 개선방안 연구. 『한국무용연구회』, 30(2): 175-202.
- 이동혁(2010). 대학진로관련 교과목의 효과성 검증 연구 분석. 『상담학 연구』, 11(2): 657-683.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53-872.
- 이종승, 지은림, 도승이(2012). 직업 역량 관련 인성검사 개발을 위한 구인 탐색. 『교육학연구』,

50(4): 221-243.

- 이종찬(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연구성과의 비교분석. 『취업진로연구』, 3(1): 49-66.
- 이지연(2002). 역량중심의 대학생 진로개발전략 모색. 『상담학연구』, 3(2): 419-438.
- 이해준, 이윤경(2014). 무용전공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의식 조사. 『한국무용과학회지』, 31(2): 17-33.
- 정미경, 김수란(2013).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 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취업관의 관계에서 진로목표 설정, 진로준비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19(2): 123-144.
- 최문경, 이기엽(2008).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1(3): 23-48.
- 최윤선(2012). 시장중심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 개발 제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254-264.
- 최재희(2015). 창의·인성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무용교육의 방향. 『한국체육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2015(5): 47-51.
- 태혜신(2012). 무용예술인의 진로정책에 관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스포츠와 법』, 15(2): 147-170.
- 한선숙(2009).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문제와 진로성숙의 관계. 『예술교육연구』, 7(2): 25-36.
- 허은영(2009). 대학생 대상 진로지도 교과목 운영의 효과. 『직업교육연구』, 28(4): 77-94.
- 현남숙(2016). 인공지능 이후의 삶: 노동하지 않아도 행복한가?. 『철학과 현상학 연구』, 70: 125-129.
- 황매향, 손만익, 강혜영(2007).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8(1): 71-91.
- 황인주(2006). 디지털 무용환경 하에서의 무용교육과정 개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10: 139-171.
- _____(2009). 안무역량 개발을 위한 안무기능과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7: 197-218.
- Betz, N. E., K. L. Klein & K. M. Taylor(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Cotman, C. W. & N. C. Berchtold(2002). Exercise: a behavioral intervention to enhance brain health and plasticity. *Trends in Neurosciences*, 25(6): 295-301.
- Cotman, C. W. & C. Engesser-Cesar(2002). Exercise enhances and protects brain function.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s*, 30(2): 75-79.
- Saunders, D. E., G. W. Peterson, J. P. Sampson, Jr. & R. C. Reardon(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298.
- Shearer, C. B., & D. A. Luzzo(2009).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to career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1): 3-13.

통계청(2013). 비정규직 고용 동향. <http://www.index.go.kr/por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2016. 10. 16.>.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2006). Shared futures: Global learning and social responsibility. liberal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The arts of democracy. <<http://www.aacu.org/SharedFutures/globalcitizenship/index.cfm>, 2015. 3. 15.>.

논문투고일 2017. 2. 15.
심사일 2017. 2. 27.
심사완료일 2017. 3. 6.

Abstract

Exploration of Coordination among Admission,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for Sustainment of Dance Department in Korea

Shin, Min Hye

Lecture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possible coordination among admission, curriculum and career education for sustainment of college dance department in Korea. It seems that the sustainment and development of dance department has been difficult without coherent coordination of admission, curricular activity and career educa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admission and curriculum need to be changed to require students' creativity. Ways to evaluate creative works and improvisation need to be adopted in the admission process. Secondly, each course aiming to develop diverse competencies should be well managed to develop actual competencies for dance students. Thirdly, openness in curriculum management to empower dance students to have the capability of convergence of diverse fields needs to be applied to the dance curriculum. Open networking to embrace diverse mentors who are able to show a variety of career paths also needs to be adopted.

Keywords: Dance(무용), coordination(조화), admission(입학), curriculum(교과과정), creativity(창의성)